

한여름 밤 통기타 추억에 빠져볼까



7일 오후 5시~10시 버스킹데이
통기타 카페서 라이브 공연
한희원 작가와 노래 이야기
팝아트 전시·아카이브 새단장

‘이번 주말엔 통기타 라이브 카페 거리에서 추억을.’

‘트윈폴리오’, ‘몽계구름’, ‘사직골’, ‘햇빛촌’, ‘유미랑의 노래발자국’...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 올라가는 길에 자리한 라이브 카페들은 통기타와 음악, 술과 차, 낭만이 어우러진 거리다. 12곳에 달하는 통기타 카페에서 많은 이들이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추억을 만들어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기타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진다.

‘광주사직통기타 버스킹DAY’가 전국 유일 통기타 라이브 카페 거리인 광주사직통기타거리에서 오는 7일 오후 5시~10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2017년 ‘광주사직통기타DAY’와 연계해 진행되는 행사로 올해는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다양한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7월 행사의 주제는 ‘한 여름 밤의 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햇빛촌’ 등 카페 12곳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뮤지션들이 각자 개성을 담은 곡들을 선보이며 싱어송 라이터 김경주와



지난해 광주사직통기타거리에서 열린 ‘버스킹 데이’ 공연 모습.

색소폰&재즈 연주자 ‘더 블루이어즈’가 초청 뮤지션으로 참여한다.

광주 통기타 1세대인 고(故)이장순 씨의 정취가 묻어 있는 라이브카페 ‘올덴뉴’에서는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오후 8시) 행사가 열린다.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가 추억의 팝, 가요, 예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꼬드메의 오영목씨가 노래 손님으로 참여한다.

또 팝아트 전시, 음악적 요소를 담은 조

형물, 미디어아티스트 빅콧과 함께하는 사직통기타거리 역사 미디어아트, 사직동 풍물단, 음악 콘텐츠 활용 플리마켓, 푸드 트럭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새롭게 단장한 통기타거리의 통기타거리의 역사와 함께 디자인한 아카이브 조형물들로 사직통기타거리 곳곳을 채울 예정이다.

그밖에 ‘폴리 MUSIX BOX’에서는 레코드판을 업사이클링한 상품, 음악과 통기타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로 창작한

상품, 각 매장주들의 사연이 담긴 오래된 기타를 업사이클링 해 작품화한 기타 등 오직 광주사직통기타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음악 테마 상품으로 구성해 전시 및 판매한다.

또 축제 당일(영업 종료 시까지) 국산 맥주 가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블로그 (<http://www.sajikroad.com>)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5-333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악기 고유의 맛...광주시향 ‘체임버 나잇’

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존 벅·뷔세르 작품 등 연주

광주시립교향악단이 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체임버 나잇; Air to Aria’를 개최한다. 광주시향의 실내악 연주회 ‘체임버 나잇’은 각 악기마다 지니고 있는 특성과 고유의 음색을 청중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 가깝게 교감하기 위해 시작된 공연으로 지난해 첫 선을 보여 호응을 얻었다.

올해 두 번째 공연은 ‘Air to Aria’란 주제로 진행되며 이번 음악회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금관악기 타악기의 앙상블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또 팀파니 김용석 수석단원이 호스트로 나서 연주자들과 관객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첫 곡은 존 벅의 ‘타악기 앙상블을 위한 서곡’과 ‘팀파니와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으로 문을 연다. 김용석을 비롯해, 퍼커션 김근동, 이현동, 객원 연주자 오미정, 강승용, 김범, 박하늘, 한애주가 연주한다.

이어 빅토르 에발트의 ‘금관 5중주 1번’을 트럼펫 기경일·추선호, 호른 이정현, 트롬본 이상현, 튜바 심재영이 연주하며 19세기 후반 당대 최고의 호른리스트였던 프란츠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호른을 위한 녹턴 작품 7번’을 호른 이윤범, 피아노 박은식이 협연한다. 또 뷔세



팀파니 김용석



피아노 박은식

르의 ‘성위베르의 사냥’을 들려주며 마지막 곡은 서정적인 선율이 풍부한 포레의 ‘피아노 4중주 1번’으로 피아노 박은식, 바이올린 이종만, 비올라 엄광용, 첼로 최승욱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준다.

협연자 피아니스트 박은식은 서울대학교 기악과 피아노 전공을 살기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음대에서 수학했으며 산타페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현재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학생50%할인) 문의 062-524-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목포서 ‘우봉 이매방 전국무용경연대회’

14일 개최...전날까지 접수

‘제13회 우봉 이매방 전국무용경연대회’가 오는 14일 목포 문예회관에서 열린다.

1927년 목포에서 태어난 고(故) 우봉(宇峯) 이매방(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기능보유자) 선생은 1927년 호남교방계열 춤사위를 중심으로 전통춤을 발전시킨 명인이다.

우봉이매방춤보존회와 (사)한국예총 목포시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선생의 춤을 계승하고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 전에는 지난해 명무부 대상수상자인 정영수(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씨의 축하무대가 마련된다. 마감은 오는 13일까지다. 신청 접수 네이버카페 우봉이매방춤보존회(cafe.naver.com/gray6nanan).

한편 지난달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목포문예회관 1층 이매방 춤 전시관에서 제20회 살풀이춤 연수회가 열렸다. 문의 010-4343-543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봉 이매방

‘클래식으로 만나는 김광석의 노래들.’

지휘자 진운일이 이끄는 챔버 앙상블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Academy of Passion and Sharing-이하 APS)이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7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국내 정상급 현악 주자들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 APS는 장단 이래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열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서울, 양평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APS는 정통 클래식 뿐 아니라 다양한 레퍼토리와 실험적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 ‘장고스튜디오 나이트 콘서트’, ‘김광석 20주기 추모콘서트’ 등

클래식으로 만나는 김광석의 노래들

‘APS’ 광주 공연
7일 금호아트홀

이 대표적이다.

전남 남악에 분사를 두고 있는 오성정 보통신(대표이사 이만선)의 후원으로

2016년 제 1회 나눔콘서트를 통해 광주 클래식 팬들과 만나온 APS는 올해 ‘제 3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로

광주·전남시민들을 찾는다.

‘김광석과 슈베르티아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사랑했지 만’, ‘먼지가 되어’, ‘그날들’, ‘사랑이라는 이유’ 등 김광석이 노래 7곡을 만나며 소프라노 윤은주(광주시립합창단원) 씨가 협연한다.

또 슈베르트의 곡으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세레나데’, ‘아베마리아’ 등 대표곡 4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등병의 편지’와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콜라보해 클래식으로 편곡한 곡을 공개, 다른 생명력을 얻은 김광석의 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